

# 영 블랙플 번리 지역 첫 불교센터 들어선다

## 켈상 완척 스님,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할 터"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카운티(Lan-cashire county)에 블랙플(Blackpool) 지역에 영국인 스님이 지역 불자들과 함께 티베트 불교계 사원을 준비하고 있다.

〈Pendle Today〉지는 3월 24일(현지시각) "블랙플의 번리(Burnley) 지역에 첫 번째 불교사원인 케즈라 불교센터(Keajra Buddhist Center)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순수 영국인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켈상 완척(Kelsang Wanchuk) 스님이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불교센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순수 영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블랙플 사상 첫 불교센터 개원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의미를 더했다.



켈상 완척(Kelsang Wanchuk · 사진) 스님이 블랙플 번리 지역의 불자들과 예불을 올리고 있다. 순수 영국인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스님은 현재 번리 지역의 영국인 불자들과 함께 이 지역 첫 불교센터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Pendle Today〉지, "랭커셔카운티 운영위 승인 낙관"

### 순수 영국인 불자들이 불교센터 개원하는 점에 주목

과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고, 당시 사용했던 대규모 창고들은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으로 개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Pendle Today〉지에 따르면 이들 창고 중에서 아직까지 종교 시설로 사용된 예는 없다.

"과거의 창고가 지금에서 '영적 피난처'가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일 것"이라는 켈

상 스님은 "랭커셔카운티 위원회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종교 생활과는 다소 떨어진 이곳의 정서에 케즈라 불교센터가 새로운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다소 서원이 담긴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켈상 스님은 "불자는 물론 지역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조화와 평화를 개발하고 영감과 격려를 찾을 수 있

는 곳으로 불교센터를 다져나갈 것"이라며 "우선 기도와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불교센터에는 티베트 전통 공예품 가게와 불서 전문 서점을 개설하는 한편 무알콜 음료와 따뜻한 음식과 차를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켈상 스님을 도와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에 산파 역할을 도맡고 있는 넬 그레이엄(Nell Grahame) 씨는 "지역 불자들은 안정된 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다는 데 크게 고무되어 있다"며 "현재 40여 명이 매주 3회 켈상 스님에게 명상을 지도받고 있으며, 불교센터가 개원되면 더 많은 지역인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또한 "블랙플 번리 지역은 랭커셔카운티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신심이 미약한 곳"이라고 지적한 넬 그레이엄 씨는 "케즈라 불교센터가 이 지역의 신심을 다잡고, 청소년들까지 부처님 품으로 귀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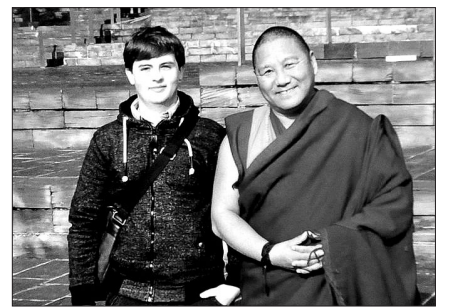
한편 "켈상 스님의 제안서는 현재 랭커셔카운티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전한 〈Pendle Today〉지는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을 위해 이미 120만 파운드(약 21억 원 상당)의 제원이 조성된 만큼 운영 위원회에서도 켈상 스님의 제안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케즈라 불교센터는 랭커셔카운티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블랙플 번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정신장애 길 잃은 소년을 가족 품으로

### 롭상 스님, 웨일즈 미담의 주인공으로 회자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실종되어 슬픔에 쌓인 부모에게 실종된 자녀를 무사히 돌려보낸 티베트 스님의 미담이 웨일즈(Walse)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티로 아예(Tilo Yaye · 17) 군과 롱상(Lobsang) 스님.

〈Walse Online〉지는 "웨일즈 칸톤(Canton) 지역에 살고 있는 롱상(Lobsang) 스님이 카디프(Cardiff) 시장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자인 독일 청소년 티로 아예(Tilo Yaye · 17)를 발견, 한 달여 만에 독일로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롱상 스님은 두 달 전 카디프 시장 외곽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던 아예를 우연히 발견하고 칸톤에 있는 사원으로 데려갔다.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예는 카디프에 도착할 당시 여권, 돈, 옷 등이 들어 있는 여행 가방을 분실했다. 이후 아예는 카디프 시장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길거리에서 잠자기를 반복했다.

롭상 스님은 "카디프 시장 길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아예를 본 순간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수행자라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망설이지 않아야 하고, 아예에게 딱정 불행을 함께 헤쳐가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아예에게 "사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독일인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영국을 방문했다가 길을 잃고 여권, 돈,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스님은 독일 대사관의 도움으로 아예의 가족을 찾았고, 그들에게 아예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미셸 오바마, 티베트 식당 방문 中네티즌 비난

### 3월 26일 방문...거리에서 티베트인과 교육·문화 이야기 나눠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이 중국 방문 당시 티베트 식당을 방문해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미셸 여사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스촨성 청두의 한 티베트 식당을 찾았다. 청두는 그동안 중국의 티베트 감정에 반대하는 티베트 승려들이 잇따라 분신자살을 한 곳이기도 하다. 미셸 여사는 음식점 방문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티베트인들과 만나 교육·문화 유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 식당 방문은 미셸 여사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셸 여사가 간접적으로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라 해석이 나왔다.

미셸 여사는 티베트 식당 방문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과거 티베트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베트 불교와 망명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용서와 관용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달라이 라마를 언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셸의 티베트 식당 방문이 미국이 암묵적으로 티베트를 지지하는 정치적 신호라고 비판했다.

티베트 네티즌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미셸 여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티베트 문화가 소멸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셸이 방문한 식당이 진짜 티베트 식당이 아닌 티베트자치구 정부 청두 사무처가 운영하는 관영식당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셸 오바마가 운장대를 돌리고 있다.

티베트인들도 진짜 티베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Barack Obama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의 강한 반대에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해 면담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불교 명산 우타이 산의 선 테마 호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불교 명산 우타이(Wutai, 오대) 산에 6월 중 선(禪) 테마 호텔이 오픈한다. 〈People's Daily(인민보)〉지는 3월 24일 "산사에서 생활하는 불자들의 황토색 법복을 유니폼으로 입은 직원들이 로비에서 투숙객을 맞을 '우타이 선 호텔(Wutai Zen Hotel)'에서 투숙객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향을 피우며 예불을 올리고 채식하는 것은 물론 스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People's Daily〉지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오픈할 '우타이 선 호텔'은 500여 명이 동시에 투숙할 수 있는 대규모 호텔 객실, 레스토랑, 산책로 등 모든 시설이 선을 주제로 설계되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 미기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미기목 지방을 점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송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 바퀴 돌면 기력**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중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에 발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 조갈증, 영노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반이 든 여혈도 풀여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용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연스님께 대중공양할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근) · 제조원 : 구암식물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KBS 과학카페

###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성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사찰 화재보험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西日石)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